

제54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정답 및 해설

역사전문가 고종훈 연구실 제공

1. ①

(가)는 빗살무늬토기, 갈돌·갈판 등의 도구가 사용되고 정착 생활과 농경이 시작된 신석기 시대이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대체로 강가나 바닷가에 살면서 어로와 사냥을 하였지만, 나중에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어 식량을 생산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돌과 뿔로 만든 쟁이, 돌삽, 돌보습, 돌낫 그리고 갈판과 갈돌 등 농경과 관련된 유물들이 발견되어 이를 뒷받침한다.

신석기 시대에는 각종 농경 도구나 토기를 만들어 쓰는 것 이외에도 원시적인 수공업 활동이 이루어졌다. 옷이나 그물을 만들 때 사용하는 가락바퀴나 뼈바늘이 출토되는 것을 통해 이를 짐작할 수 있다.

[오답분석]

② 철기 시대에 중국의 오수전, 명도전이 교역에 사용되었다.

③ 청동기 시대에 의례 도구로 청동 방울 등을 사용하였다.

④ 청동기 시대 후기(초기 철기 시대)에 거푸집을 이용하여 세형 동검을 제작하였다.

⑤ 청동기 시대에 지배층의 무덤으로 고인돌을 축조하였다.

2. ③

읍락마다 후, 읍군, 삼로라 불리는 군장이 있었고,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열렸으며, 특산물로 단궁(활), 과하마, 반어피(바다표범 가죽) 등이 유명하였던 국가는 동예이다.

동예는 씨족 사회의 풍습이 늦게까지 남아 있었다. 족외혼을 엄격하게 지켰으며, 읍락마다 생활권이 구분되어 있었다. 만약 다른 읍락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였을 때에는 노비나 소, 말 등으로 변상하도록 하는 책화라는 제도가 있었다.

3. ⑤

이진아시왕이 고령 일대에 세운 (가) 나라는 대가야이다.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토기와 금동관, 철제 갑옷과 투구 등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변한 지역에서는 3세기에 변한의 구야국에서 성장한 금관가야가 중심 세력이 되어 전기가야 연맹을 이루었다. 금관가야는 4세기 말 신라를 지원하기 위해 출병한 고구려군의 공격으로 몰락하여 가야 연맹의 주도권을 상실하였다. 5세기 후반 이후에는 고령 지방의 대가야가 가야 연맹을 주도하였는데, 이를 후기 가야 연맹이라고 한다. 대가야는 남제와 통교하고 백제, 신라와 대등하게 세력을 다투었다. 6세기 들어 신라 법흥왕 때 금관가야가 멸망하고 진흥왕 때 공격을 받아 대가야도 멸망하였다(562).

[오답분석]

① 고조선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8조의 법을 제정하였는데, 현재는 세 조항만 전해지고 있다.

② 임신서기석의 내용을 통해 신라 청소년들이 유교 서적을 공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고구려가 멸망한 뒤 당은 고구려의 옛 땅에 안동도호부를 두고 직접 지배하고자 하였다.

④ 백제 무령왕 때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여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4. ③

울진 봉평리 신라비를 세웠으며 병부를 설치하고 율령을 반포한 왕은 신라 법흥왕이다. 법흥왕(514~540)은 율령을 반포하고 17관등제를 완비했으며 공복을 제정하여 관직을 체계화하였다. 중앙 부서로서 병부를 설치하여 군사권을 장악하였으며, 531년에는 상대등을 설치하였다.

한편 사상의 통일을 위해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였다(527). 그리고 불교식 왕명을 사용하여 왕의 권위를 높이고,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여 자주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오답분석]

- ① 지증왕 때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하였다.
- ② 신문왕 때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하였다.
- ④ 원성왕 때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 수준에 따라 관리를 채용하는 독서삼품과를 시행하였다.
- ⑤ 진흥왕 때 거칠부에게 명하여 국사를 편찬하게 하였다.

5. ⑤

지안(집안)과 평양이 도움이었던 ‘이 국가’는 고구려이다. 고구려에서는 초기에 돌무지무덤을 많이 만들었으며, 점차 굴식 돌방무덤을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많은 벽화가 남아 있다. 처음에는 무덤 주인과 관련된 생전의 생활 모습이 벽화로 그려졌으나, 후기로 갈수록 불교적 요소를 담은 추상 무늬나 도교의 신선과 하늘 세계를 주로 그렸다.

- ① 수산리 서벽 교예도 벽화와 ② 무용총 접객도 벽화에는 귀족들과 시중드는 노비의 신체 크기가 달리 묘사되어 있다. ③ 고구려에서는 청룡, 백호, 주작, 현무 등 동서남북을 지키는 도교의 방위신을 그린 사신도가 많이 남아있는데, 강서대묘, 진파리 1호분, 통구 사신총 등의 것이 가장 세련되었다. ④ 각저총 씨름도에는 눈이 크고 코가 높은 서역계 인물이 그려져 있다.

[오답분석]

- ⑤ 밀양 박익 벽화묘는 고려 시대에 조성된 고분으로 내부 석실의 사방벽에 벽화가 그려져 있다.

6. ⑤

(가)는 660년에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킨 직후의 모습이고, (나)는 676년에 금강 하구의 기벌포에서 신라군이 당의 수군을 섬멸한 모습이다.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하자 당은 웅진도독부와 안동도호부를 각각 설치하여 백제와 고구려의 옛 땅을 직접 지배하려 하였으며, 나아가 신라마저 지배하려는 야욕을 드러냈다. 이에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유민들과 함께 당에 대항하였다. 671년 사비성을 공략하여 소부리주를 설치함으로써 옛 백제 땅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였다. 한편 신라는 고구려 부흥 운동을 전개하였던 안승을 금마저(전북 익산)에 정착하게 하고 고구려왕으로 봉하였으며, 674년에는 보덕국왕으로 임명하여 고구려 부흥 운동 세력을 당과의 전쟁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신라는 매소성과 기벌포 전투에서 승리하여 당을 몰아내고, 삼국 통일을 이루었다(676).

[오답분석]

- ① 371년 백제의 침략으로 고구려 고국원왕이 평양성에서 전사하였다.
- ② 554년 백제 성왕이 신라를 공격하다 관산성 전투에서 피살되었다.
- ③ 648년 김춘추가 당과의 군사 동맹을 성사시켰다.
- ④ 612년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의 별동대를 물리쳤다.

7. ④

‘해동성국’이라 불린 (가)는 발해이다. 발해는 9세기 전반 선왕 때 전성기를 맞이하여, 그 영역이 북으로는 헤이룽 강, 동으로는 연해주, 서로는 요동에 이르렀다. 당은 이러한 발해를 ‘해동성국’이라 불렀다.

발해는 선왕 때 5경 15부 62주의 지방 행정 체제를 완비하였다. 5경은 전략적 요충지에 두었는데, 상경 용천부, 중경 현덕부, 동경 용원부, 남경 남해부, 서경 압록부가 이에 해당한다. 15부 62주 아래의 유력 부락에는 중앙에서 도독이나 자사를 파견하였으나, 촌락은 수령으로 불리는 토착 세력이 다스렸다. 수령은 지방 행정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및 일본에 외교 사절로 파견되어 교역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오답분석]

- ① 고려 정종 때 광군을 창설하여 거란의 침략에 대비하였다.
- ② 통일 신라 시대에 중앙군으로 9서당, 지방군으로 10정의 군사 조직을 운영하였다.

- ③ 고려 광종 때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⑤ 통일 신라 시대에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해 의사정을 파견하였다.

8. ④

- (나) 헌덕왕(809~826) 때 김헌창은 자신의 아버지 김주원이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응주(공주)에서 반란을 일으켰으나 정부군에 의해 진압되었다(822).
- (다) 흥덕왕(826~836) 때 장보고(공복)는 지금의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적을 소탕하여 남해와 황해의 교통과 무역을 장악하였다. 장보고는 신무왕(김우징)의 즉위를 돕는 등 신라 왕실의 내분에도 개입하였다. 신무왕의 아들 문성왕(839~857)이 자신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기를 거절하자 난을 일으켰으나 자객에게 살해당했다.
- (가) 진성여왕(887~897) 때 서남 지역에서 일어난 적고적은 금성(경주) 인근까지 쳐들어가기도 하였다(896).

9. ⑤

익산의 미륵사는 백제 중흥의 의지를 불태우던 무왕이 건설한 사찰로, 현재 남아 있는 미륵사지 석탑과 당간지주 등으로 보아 한국 최대 규모의 사찰로 추정되고 있다. 중앙에 목탑을 세우고 동서에 거대한 석탑을 세운 3금당 3탑 양식인데, 지금은 서탑의 일부만이 남아 있다.

미륵사지 석탑의 보수 정비를 위한 해체 조사 과정에서 사리 장엄구 일체가 발견되었다. 사리 장엄구는 사리를 넣은 금동제 용기와 공양물, 그리고 금제 사리봉영기 등을 포함한다. 금제 사리봉영기에는 미륵사의 창건 배경과 발원자, 석탑 건립 연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오답분석]

- ① 부여 능산리 고분군 인근의 절터에서 백제 금동 대향로가 출토되었다.
- ② 온조왕은 하남 위례성을 왕성으로 삼았다.
- ③ 부여 호암사에 재상을 선출하던 천정대가 있었다.
- ④ 공주 송산리 고분군에서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이 발굴되었다.

10. ⑤

(가)는 신라 경애왕을 죽이고 경순왕(김부)을 즉위시킨 견훤이다. 상주 출신의 견훤은 군인이 되어 서남 해안을 지키던 중 농민 봉기가 일어나자 전라도 지역에서 세력을 키웠다. 이후 견훤은 완산주(전주)에 도읍을 정하고 후백제를 세운 후(900),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을 장악하였다. 견훤은 927년 신라의 금성(경주)을 습격하여 경애왕을 죽이고 경순왕을 즉위시켰다.

차령산맥 이남의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을 차지한 후백제는 우세한 경제력을 토대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였고, 중국의 오월과 외교 관계를 맺는 등 국제적 감각도 갖추었다. 그러나 견훤은 지나치게 조세를 수취하여 농민의 인심을 잃었으며, 신라를 적대시한데다가 호족을 포섭하는 데에도 실패하여 한계를 보였다. 한편 견훤이 왕위를 넷째 아들 금강에게 물려주려 하자, 장남인 신검은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하였다. 이후 견훤은 금산사를 탈출하여 고려에 귀순하였으며, 왕건은 신검 군대와와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후삼국을 통일하였다(936).

[오답분석]

- ① 고려 충선왕 때 사림원을 설치하여 개혁을 실시하였다.
- ② 궁예가 국호를 후고구려에서 마진으로 바꾸고 철원으로 천도하였다.
- ③ 신라 신문왕이 김흠돌을 비롯한 진골 귀족 세력을 숙청하고 왕권을 강화하였다.
- ④ 고려 태조 왕건이 정계와 계백료서를 지어 관리의 규범을 제시하였다.

11. ⑤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올린 것은 고려 성종 때이다. 성종은 즉위 후에 국가 운영을 쇄신하기 위해 중앙의 5품 이상 관리들에게 정책 비판과 건의가 담긴 글을 올리게 하였다. 최승로는 시무 28조를 올려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할 것을 주장하였다. 최승로는 유교가 국가 통치의 이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불교 행사 억제, 지방관 파견, 삼한 공신 자손에 대한 처우 개선, 노비 관련 재판 개선 등을 주장하였다.

성종은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 중앙 집권에 필요한 통치 제도를 정비하였다. 2성 6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 관제를 수립하였으며, 지방관을 파견하고 향리 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국자감과 과거제를 정비하였으며, 지방에 경학박사 등을 파견하여 유학 교육 진흥에 노력하였다.

[오답분석]

- ① 고려 태조 때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흑창을 처음 설치하였고 성종 때 의창으로 확대하였다.
- ② 광종 때 노비안검법을 시행하여 호족들이 불법적으로 가진 노비를 해방시켰다.
- ③ 예종 때 청연각과 보문각을 두어 학문 연구를 장려하였다.
- ④ 공민왕 때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빼앗은 토지를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강제로 노비가 된 사람을 양민으로 해방하였다.

12. ③

신기군, 신보군, 향마군으로 편성된 (가)는 별무반이다.

12세기 이후 요가 쇠퇴하면서, 여진족은 부족을 통일하고 고려 국경까지 남하하여 고려군과 자주 충돌하였다. 고려는 윤관의 건의에 따라 신기군(기병), 신보군(보병), 향마군(승병)으로 구성된 별무반을 조직하고(1104), 국력을 총동원하여 약 17만 명을 여기에 소속시켰다. 이후 윤관은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 정벌을 추진하여 동북 9성을 설치하였다(1107). 그러나 여진족의 침입이 계속되어 방어가 어렵게 되자, 조공을 약속받고 돌려주었다.

[오답분석]

- ① 조선 세종 때 최윤덕, 김종서가 4군 6진을 개척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 ② 충렬왕 때 원의 요청으로 고려 군이 일본 원정에 참여하였다.
- ④ 몽골의 2차 침입 때 김윤후가 처인성에서 부곡민과 함께 몽골 장수 살리타를 사살하였다.
- ⑤ 최우가 설치한 삼별초가 최씨 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 역할을 하였다.

13. ④

묘청의 난(1135) 진압 이후 유교 사관을 바탕으로 삼국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는 『삼국사기』이다.

인종 때 김부식 등이 왕명을 받아 편찬한 『삼국사기』는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서이다. 『삼국사기』는 기전체 방식을 도입하여 본기(왕조 역사) · 연표 · 지(제도사) · 열전(신하의 전기)으로 구성되었다. 본기는 삼국 왕실의 역사를 균형 있게 기록하여 외형적으로는 중립적 입장에서 있으나, 연표 · 지 · 열전 등은 신라사에 치중되어 있다.

[오답분석]

- ① 유득공이 지은 『발해고』에서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 ② 『조선왕조실록』이 사초,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편찬되었다.
- ③ 『삼국유사』, 『제왕운기』, 『응제시주』 등이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 ⑤ 『동명왕편』이 고구려 건국 시조의 일대기를 서사시로 표현하였다.

14. ③

순천 송광사를 근거로 불교계 개혁 운동을 전개하고, 돈오점수를 주장한 (가)는 보조국사 지눌이다. 지눌은 명리에 집착하는 당시 불교계의 타락상을 비판하고, 경북 영천에서 정혜결사를 만들어 불교 혁신

운동을 전개하였다.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독경과 선 수행, 노동에 고루 힘쓰자는 정혜결사는 전남 순천으로 옮겨가서 수선사 결사로 명칭을 바꿨다. 송광사에 중심을 둔 이 결사 운동은 개혁적 승려들과 지방민의 호응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후 이 운동은 조계종으로 발전하였다.

지눌은 선과 교학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수행해야 한다는 정혜쌍수와, 자신이 곧 부처라는 점을 깨달은 이후에도 꾸준한 수행을 해야 한다는 돈오점수를 강조하였다.

[오답분석]

- ① 각훈이 삼국 시대 이래의 승려들의 전기를 담은 『해동고승전』을 집필하였다.
- ② 신라의 의상이 『화엄일승법계도』를 지어 화엄 사상을 정리하였다.
- ④ 대각국사 의천이 불교 경전에 대한 주석서를 모아 교장을 편찬하였다.
- ⑤ 균여가 보현십원가를 지어 불교 교리를 대중에게 전파하였다.

15. ④

인품을 배제하고 관직과 위계의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전지와 시지를 지급한 토지제도는 고려 목종 때 시행한 개정 전시과이다. 경종 때 시행한 시정 전시과(976)는 관직의 높고 낮음과 함께 인품을 반영하여 전·현직 관리에게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다. 성종 때 확립한 관직체계 정비의 영향으로 목종 때에는 전시과의 지급 기준과 지급량을 개정하였다(998). 개정 전시과에서는 인품 요소를 배제하고 오로지 관품만을 기준으로 18과로 나누어 차등 지급하였으며, 시정 전시과에 비해 전체적으로 지급 액수가 줄어들었다.

고려 시대에는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화폐도 발행되었다. 성종 때 철전인 건원중보가, 숙종 때 삼한통보, 해동통보, 해동중보 등의 동전과 은병(활구)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화폐는 널리 유통되지 못하였고, 물건을 거래할 때에는 여전히 곡식이나 배가 사용되었다.

[오답분석]

- ① 조선 후기에 일본과의 무역을 위해 초량에 왜관을 설치하였다.
- ② 조선 후기에 독점적 도매상인인 도고가 활동하였다.
- ③ 신라 지증왕 때 시장을 관리하는 관청인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 ⑤ 조선 후기에 민간의 광산 개발을 허용하는 설점수세제를 시행하였다.

16. ③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로 간행된 (가)는 『직지심체요절』이다. 『직지심체요절』은 백운화상이 저술한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을 청주 흥덕사에서 1377년에 금속활자로 인쇄한 것이다. 이 책은 본래 상(上), 하(下) 2권으로 인쇄되었으나 상권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고, 하권만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직지심체요절』은 독일의 구텐베르크 성경보다 70여 년 앞선 것으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인정받고 있다.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오답분석]

- ① 이황이 『성학십도』를 지어 군주의 도를 도식으로 설명하였다.
- ② 신라 민정문서가 세금 수취를 위해 3년마다 작성되었다.
- ④ 고려 현종 때 거란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초조대장경을 제작하였다.
- ⑤ 조선 세종 때 충신, 효자, 열녀를 알리기 위해 『삼강행실도』를 간행하였다.

17. ②

(가)는 고려 충렬왕 때 원의 강요로 왕실 용어를 격하한 사실을 보여주고, (나)는 공민왕 사후 우왕이 즉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고려는 몽골과의 오랜 항전 끝에 국가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으나, 원의 간섭을 피할 수는 없었다. 왕은 원의 공주와 결혼하였으며, 왕실의 호칭과 관제도 제후국에 맞게 격을 낮추어야 하였다. 원은 일본 원정이 실패한 뒤에도 정동행성을 계속 유지하여 내정 간섭 기구로 삼았고, 다루가치라는 감찰관을 파견하

여 공물 징수와 지방 행정 등 내정을 간섭하였다. 원은 고려의 영토 중 철령 이북 지역에는 쌍성총관부, 서경에는 동녕부, 제주에는 탐라총관부를 두어 직접 통치하였다.

공민왕(1351~1374)은 대대적인 반원 운동을 전개하면서 기철 등 친원세력을 숙청하고, 정동행성 이문소를 혁파했다. 이어서 병마사 인당으로 하여금 압록강 서쪽의 8개 참(站)을 공격하게 했으며, 병마사 유인우로 하여금 쌍성총관부를 공격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총관 조소생과 친호 탁도경의 저항에 부딪혔으나, 이 지역의 토착 세력인 이자춘이 협력하여 쌍성총관부를 폐지하고 철령 이북 지역을 회복하였다.

[오답분석]

- ① 우왕 때 최무선의 건으로 화통도감을 설치하여 화포를 제작하였다.
- ③ 1170년에 정중부 등이 정변을 일으켜 문신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 ④ 1232년 최우가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몽골과의 장기 항전을 준비하였다.
- ⑤ 우왕 때 명의 철령위 설치에 반발하여 요동 정벌을 추진하였다.

18. ⑤

장영실은 이천·이순지·김담 등과 더불어 세종대의 과학 기술 발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핵심 인물이었다. 동래현의 관노로 있던 장영실은 뛰어난 기술 재능을 인정받아 태종 때 조정에 발탁되었고, 세종 때 각종 과학 기계 제작에 많은 공헌을 하면서 관직도 점차 올라갔다. 자격루를 제작한 뒤에는 정 4품 군직(軍職)인 호군(護軍)에 임명되었고, 1438년(세종 20)에는 종3품 대호군(大護軍)의 직위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세종 때 정초, 변효문 등이 우리나라 기후 풍토에 알맞은 독자적인 농법을 처음으로 정리한 『농사직설』을 편찬하였다. 이 책은 『제민요술』·『농상집요』·『사시찬요』 등 중국의 화북 농법을 수용하는 한편, 씨앗의 저장법, 토질의 개량법, 모내기법 등 전국 각지의 농민들이 실제 경험한 농사법을 종합하였다.

[오답분석]

- ① 태종 때 주자소를 설치하고 구리로 계미자를 주조하였다.
- ② 정조 때 이덕무, 박제가 등이 훈련 교범인 『무예도보통지』를 간행하였다.
- ③ 선조 때 사수, 살수, 포수로 구성된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
- ④ 광해군 때 허준이 전통 한의학을 집대성한 『동의보감』을 완성하였다.

19. ②

궁중의 서적과 문서 관리를 담당하였으며, 옥당·옥서로 불렸던 기구는 홍문관이다. 홍문관(장관은 정2품 대제학)은 궁중의 경서(經書)·사적(史籍)의 관리와 문한(文翰)의 처리 및 왕의 각종 자문에 응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홍문관은 집현전의 후신으로 조선 성종 때 설치되었으며, 사헌부·사간원과 함께 3사로 불렸다. 3사의 관리는 직위가 높지는 않았지만 관리와 양반 사대부의 여론을 이끄는 언론 활동을 통해 국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3사는 국가 기강을 바로잡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학문과 덕망이 높은 사람이 주로 임명되어, 나중에 판서나 정승 등 고위직에 오르는 경우가 많았다.

[오답분석]

- ① 한성부가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맡아보았다.
- ③ 비변사가 을묘왜변을 계기로 상설 기구화되었다.
- ④ 승정원이 왕의 비서 기관으로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였다.
- ⑤ 의금부가 국왕 직속 사법 기구로 반역죄, 강상죄 등을 처벌하였다.

20. ④

(가)는 조선 시대 지방 교육 기관인 향교이다. 고려 시대에는 주요 군현에만 향교가 있었으나 조선 시대에는 모든 군현에 향교가 설립되었다. 향교는 제향 공간인 대성전, 강학 공간인 명륜당, 기숙사인 동재와 서재 등을 갖추고 성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의 교육, 지방민의 교화를 담당하였다. 향교에는 양반은

물론 평민도 입학할 수 있었는데, 향교의 정원은 인구 비례에 따라 책정되었다. 향교는 규모와 지역에 따라 중앙에서 교관인 교수(종 6품) 또는 훈도(종 9품)를 파견하였다. 교생들은 여름의 농번기에는 방학을 하여 농사를 돌보고, 가을에 추수가 끝나면 기숙사인 재에 들어가 기거하면서 유학 경전을 공부하였다. 향교에서는 매년 두 번씩 시험을 치러 우등자는 생원·진사 시험의 초시를 면제해 주고 성적 미달의 낙강생은 균역을 지도해 주었다.

[오답분석]

- ① 고려 예종 때 국자감에 전문 강좌인 7재를 운영하였다.
- ② 풍기 군수 주세붕은 서원을 처음 세웠다.
- ③ 최고 교육 기관인 성균관이 생원과 진사에게 입학 자격을 부여하였다.
- ⑤ 고려 시대 국자감에서 유학을 비롯하여 율학, 서학, 산학을 교육하였다.

21. ③

(가)는 연산군이 생모의 죽음과 관련된 이들을 제거한 갑자사화(1504), (나)는 명종 때 윤원형 등 소윤 세력이 윤임 등 대윤 세력을 제거한 을사사화(1545)를 다룬 기사이다.

연산군의 폭정이 계속되자 성희안 등이 중종반정(1506)을 일으켜 연산군을 추방하고 이복 동생(중종)을 왕으로 추대했다. 중종(1506~1544)은 유교 정치를 회복하고 훈구 대신들을 견제하여 약화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조광조 등 사림을 등용하였다. 조광조 일파는 도학정치를 내세워 훈구파의 비리를 공격하고, 천거제의 일종인 현량과를 통하여 자신들의 세력을 확대하였다. 또한 경연 강화, 소격서 폐지, 방납의 폐단 시정, 위훈삭제(僞勳削除) 등의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위훈 삭제에 대해 공신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중종도 신진 사류들의 급진적 태도에 반감을 갖게 되어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 세력은 제거되었다(기묘사화, 1519).

[오답분석]

- ① 숙종 때 경신환국(1680)으로 허적과 윤희 등 남인이 대거 축출되었다.
- ② 선조 때 정여립 모반 사건으로 기축옥사(1589)가 일어났다.
- ④ 연산군 때 조의제문이 발단이 되어 김일손 등이 처형당한 무오사화(1498)가 발생하였다.
- ⑤ 영조 때 봉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해 성균관 반수교에 탕평비를 건립하였다.

22. ②

『국조오례의』, 『악학궤범』은 조선 성종(1469~1494) 때 편찬되었다. 『국조오례의』는 국가의 여러 행사에 필요한 의례를 그림을 곁들여 정리한 책이고, 『악학궤범』은 음악의 원리와 역사, 악기, 무용, 의상 및 소도구까지 망라하여 정리하여 전통 음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성종은 세종 때의 유교 통치를 모범으로 삼아 국가 체제를 다시 정비하였다. 이를 위해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을 설치하고 경연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경국대전』의 편찬을 마무리하여 반포함으로써 법치주의에 바탕을 둔 통치규범을 확립하고 각종 문물 제도의 유교적 정비를 마무리지었다.

[오답분석]

- ① 조선 숙종 때 상평통보를 발행하여 법화로 사용하였다.
- ③ 명종 때 기근에 대비하는 방법을 제시한 『구황촬요』를 간행하였다.
- ④ 정조 때 초계문신제를 시행하여 젊고 유능한 문신들을 재교육하였다.
- ⑤ 영조 때 『동국문헌비고』를 편찬하여 역대 문물을 정리하였다.

23. ①

김시민은 임진왜란 초기 진주성 전투를 승리로 이끈 인물이다.

임진왜란 초기 조선에 불리하던 전세는 수군과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의 활약으로 점차 바뀌어 갔다. 광재우, 조현, 고경명, 정문부 등의 의병장이 이끄는 의병들은 일본군에 큰 타격을 입혔다. 한편, 바

다에서는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이 옥포에서 처음으로 승리를 거둔 후 사천, 당포, 한산도 등에서도 일본군을 물리쳤다. 조선 수군은 이순신의 지휘 아래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하여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전라도의 곡창 지대를 지킬 수 있었다.

명의 군대가 조선의 요청으로 출병하면서 전세가 더욱 역전되었다. 김시민이 진주성에서 일본군을 물리쳤으며, 조선과 명의 연합군은 평양성을 탈환하였고, 권율은 해주산성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오답분석]

① 병자호란 때 의주 부윤 임경업은 백마산성에서 항전하였고, 이후 임경업은 여러 차례 명과 연결하여 청을 치려고 시도하였지만 역모죄로 처형당하였다.

24. ③

조선 후기에 우리의 자연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진경 산수화가 발달하였다. 진경 산수화는 종래의 실경 산수화 전통에 중국의 남종과 북종 화법을 고루 수용하여 우리 산천의 형상에 어울리는 필법으로 소화하여 낸 것이다. 18세기에 활약한 정선은 서울 근교와 강원도의 명승지들을 직접 돌아보고 ‘인왕제색도’와 ‘금강전도’ 등을 그렸는데, 바위산은 선으로 묘사하고 흙산은 묵으로 묘사하는 기법을 사용하여 산수화의 새로운 경지를 이룩하였다.

[오답분석]

- ① 강세황이 그린 영통굴입구도이다.
- ② 김홍도가 그린 송석원시사야연도이다.
- ④ 조선 초기의 화가 안견이 그린 몽유도원도이다.
- ⑤ 정수영이 그린 한임강명승도권이다.

25. ①

백성들의 균역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균포를 2필에서 1필로 감면한 것은 균역법이다. 17세기 들어 균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논의가 있었다. 양반 지주층의 반대로 개혁은 계속 미루어지다가, 영조 때 균포 부담을 2필에서 1필로 줄이는 균역법을 시행하였다(1750). 정부는 균역법의 시행으로 부족해진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에게 결작으로 1결당 쌀 2두를 부과하고, 일부 부유한 상민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고 균포를 부과하였다. 또한, 왕실이 거두던 어염세와 선제도 정부 재정 수입으로 전환하였다.

[오답분석]

- ② 세종 때 연분9등법을 도입하여 풍흉에 따라 전세를 9등급으로 차등 과세하였다.
- ③ 고구려 고국천왕 때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는 진대법을 시행하였다.
- ④ 세조 때 직전법을 시행하면서 수신전, 홀양전 등의 명목으로 세습되는 토지를 폐지하였다.
- ⑤ 고려 시대에 기금을 모아 그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제위보를 운영하였다.

26. ②

‘공인’, ‘송상’, ‘책문’ 등의 단서를 통해 조선 후기의 상황임을 알 수 있다. 17세기 중엽부터 청과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국경 지대를 중심으로 개시와 후시가 이루어졌다. 의주와 경원, 회령에 개시가 열려 양국 관리의 입회 아래 교역이 이루어졌고, 의주와 책문에서는 사상들의 밀무역인 후시가 열렸다. 송상은 의주와 동래의 상인을 매개로 청·일 간의 중개 무역에도 종사하여 부를 축적하였다.

조선 후기에 중인과 서얼 층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중인들의 문학 활동도 활발해졌다. 중인들은 인왕산·삼청동 등에 많은 시사(詩社)를 결성하고, 양반사대부 문학을 모방하여 한시를 짓고 시집을 발간하는 등 활발한 문학 활동을 전개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전국적으로 장시가 확대되어 18세기 중엽에는 1,000여 개소를 넘어섰다. 장시는 대개의 경우 5일장이었으며, 장이 열리는 날은 주변 고을마다 서로 달랐다. 보부상은 이러한 장시들을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한문 소설은 물론 한글 소설이 유행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소설을 읽어 주고 일정한 보수를 받던 직업적인 낭독가, 즉 전기수가 등장하였다.

담배는 원산지가 남아메리카로, 신대륙 발견 이후 유럽에 전파되었고, 우리나라에는 광해군 대에 도입된 것으로 추측된다. 담배는 국내외의 수요가 증대하여 재배가 확대되었고, 18세기 이후에는 인삼과 더불어 대표적인 상업작물로 재배되어 농촌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오답분석]

② 솔빈부는 발해 15부 중의 하나로, 이곳에서 생산되는 말은 발해의 주요 수출품이었다.

27. ③

서얼 출신으로 규장각 검서관에 발탁되었으며, 재화를 우물물에 비유하며 소비 축진을 통한 생산력의 증대를 주장한 인물은 박제가이다.

서얼 출신의 박제가(1750~1805)는 박지원의 문하에서 이덕무, 유득공 등과 교류하며 실학을 연구하였다. 박제가는 채제공을 수행하여 청에 다녀온 후 청에서 보고 들은 것을 정리해 『북학의』를 집필하였다. 그는 이 책에서 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제창하고, 청과의 통상 강화, 수레와 선박의 이용, 신분제 타파 등 상공업 발전 방안을 역설하였다. 또, 생산과 소비와의 관계를 우물물에 비유하면서 생산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절약보다 소비를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오답분석]

① 정약용이 『기기도설』을 참고하여 거중기를 설계하였다.

② 정제두가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학파를 형성하였다.

④ 박지원이 『열하일기』에서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⑤ 유수원이 『우서』에서 사농공상의 직업적 평등을 주장하였다.

28. ②

(가)는 김정호가 제작하였으며 10리마다 눈금을 표시하여 거리를 알 수 있게 한 대동여지도이다. 19세기 중엽 김정호가 제작한 대동여지도는 조선의 지도 기술을 집대성하여 만든 지도의 결정판이었다. 전국을 22개의 첩으로 구성하였는데, 각 첩은 접어서 쓸 수 있게 하여 휴대하기 편리하였다. 도로는 10리마다 짧은 선분 표시를 하여 거리를 쉽게 알 수 있게 하였으며, 주요 시설물을 나타내는 기호를 사용하여 지리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높였다.

[오답분석]

① 영조 때 정상기가 제작한 동국지도에 최초로 100리 척이 적용되었다.

③ 조선 전기에 제작된 팔도도, 팔도총도 등이 현재 전해지고 있으며, 대동여지도는 조선 후기에 제작되었다.

④ 성종 때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에 각 지방의 연혁, 산천, 풍속 등이 자세히 나타나 있다.

⑤ 1673년에 김수홍이 제작한 조선팔도고금총람도는 전국의 지리 정보에 주요 인물과 역사적 사실을 병기하였다.

29. ②

경상 우병사 백낙신의 가혹한 수탈에 저항하여 진주의 농민들이 봉기한 사건은 임술 농민 봉기(1862)이다. 1862년 삼정(三政)의 문란과 경상도 우병사 백낙신의 가혹한 수탈에 저항하여 진주 민중은 몰락 양반인 유계춘의 주도로 관아를 부수고 한때 진주성을 점령하기도 하였다. 이를 계기로 농민의 항거는 북쪽의 함흥으로부터 남쪽의 제주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임술 농민 봉기가 일어나자 정부는 선무사·안핵사·암행어사 등을 파견하여 지방의 실정을 조사하고 봉기의 원인이 된 수령을 처벌하는 한편,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여 삼정의 문란을 시정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 결과 농민 봉기는 다소 진정되었으나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오답분석]

- ① 임오군란(1882)과 갑신정변(1884)이 청의 군대에 의해 진압되었다.
- ③ 1811년 서북인에 대한 차별에 반발하여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다.
- ④ 1894년 동학농민군의 2차 봉기가 남접과 북접이 연합하여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 ⑤ 1883년에 개정된 조일통상장정에 따라 1889~1890년 함경도와 황해도에서 방곡령이 선포되었다.

30. ④

(가)는 서원을 철폐하였으며, 임오군란 때 일시 집권하여 5군영을 복구한 흥선대원군이다. 흥선 대원군은 유생들의 강력한 반발을 물리치고 서원을 대폭 정리하여 47개만 남기고 모두 철폐하였다. 또한, 철폐된 서원 소유의 토지와 노비를 몰수하여 국가 재정을 확충하였다. 한편 1882년에 임오군란이 일어나자 고종은 흥선 대원군에게 사태 수습을 위임하였다. 다시 권력을 장악한 흥선 대원군은 통리기무아문과 별기군을 폐지하고 삼군부와 5군영을 부활시켰다. 그러나 청이 군대를 파견하여 흥선 대원군을 군란의 책임자로 지목하여 납치해 감으로써, 흥선 대원군의 재집권은 1개월여 만에 막을 내렸다.

1871년 미국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군함을 보내 강화도를 침략하였다(신미양요). 미군은 초지진과 덕진진을 함락하고, 광성보를 수륙 양면으로 공격하였다. 이에 어재연이 이끄는 조선군이 결사 항전을 벌였으나 전력의 열세로 함락되었다. 미군이 철수한 뒤 흥선 대원군은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세워 서양과의 수교 거부 의지를 밝혔다.

[오답분석]

- ① 정조가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여 왕권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였다.
- ② 효종 때 청의 요청으로 나선 정벌을 위해 두 차례 조총 부대를 파견하였다.
- ③ 영조 때 속대전을 편찬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 ⑤ 독립협회가 영은문이 있던 자리 부근에 독립문을 건립하였다.

31. ②

1871년 미국은 제너럴 셔먼호의 책임을 묻겠다고 하면서 신미양요를 일으켰다. 로저스 제독은 콜로라도호 등 군함 5척을 이끌고 강화 해협의 조선군 진지를 공격하여 초지진과 덕진진을 함락하였다. 곧 이어 미국 해병대는 광성보를 수륙 양면으로 공격하였으나 조선군의 거센 저항을 받았다. 광성보 전투에서 조선군은 어재연·어재순 형제를 비롯 전사자가 350여 명에 달했으나 미군은 전사자 3명, 부상자 10명에 불과하였다.

32. ②

(가)는 1876년 김기수가 제1차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직후의 상황이고, (나)는 1881년 4월 근대 문물 시찰을 위해 일본으로 조사시찰단(신사유람단)을 비밀리에 파견하는 상황이다.

강화도 조약 체결 후 조선은 김기수를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하고, 1880년에는 김홍집을 다시 수신사로 파견하였다. 이들은 일본의 근대 문물을 시찰하고 돌아왔다. 조선 정부는 이들의 시찰 의견을 바탕으로 근대 문물을 수용하는 개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개화 정책을 담당하는 기구로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고(1880) 그 밑에 12사를 두어 근대적 개혁과 외교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군제 개혁에 착수하여 기존의 5군영을 2영(무위영과 장어영)으로 통합하였다. 또한, 별기군(교련병대)을 창설하고, 일본인 교관을 초빙하여 근대식 군사 훈련을 시작하였다(1881).

[오답분석]

- ① 1882년에 미국과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고, 1883년에 미국에 보병사를 파견하였다.
- ③ 1875년 일본의 운요호가 강화도와 영종도를 무단 침입하였다.
- ④ 1895년에 교육 입국 조서가 반포되고 교원 양성을 위해 한성 사범 학교가 설립되었다.
- ⑤ 1886년에 프랑스와 조약을 체결하여 천주교 포교가 허용되었다.

33. ①

제시된 자료는 전주화약과 군국기무처 주도의 제1차 갑오개혁을 보여주므로 (가)는 1894년 5월 7일 이후부터 1894년 6월 25일 군국기무처 설치 사이의 사건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894년 5월 7일 동학농민군은 관군과 전주화약을 맺고 스스로 해산하였다. 이후 농민군은 전라도 53개 지역에 집강소라는 농민 자치 조직을 설치하여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면서 자신들이 내세운 폐정개혁안을 실천하였다.

정부는 농민군과의 국정 개혁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6월 11일 교정청이라는 개혁 기구를 설치하였다. 교정청 주도로 자주적 개혁이 추진된다면 일본은 군대를 주둔시킬 명분이 없었다. 이에 일본은 6월 21일 새벽에 일본군 3,000명을 동원해 경복궁을 점령하여 국왕과 왕비, 왕세자를 인질로 잡고 정부군을 무장해제 시켰다. 일본은 흥선대원군에게 섭정을 맡게 하고 친일정권(제1차 김홍집 정권)을 수립하였다. 김홍집 정권은 교정청을 폐지하고 초정부적인 회의 기구인 군국기무처를 설치하였다. 군국기무처는 그 해 11월까지 5개월 동안 약 210건의 개혁안을 제정하고 실시하였다(제1차 갑오개혁).

[오답분석]

- ② 1896년에 서재필 등이 독립신문을 창간하였다.
- ③ 1898년에 대한제국 황실과 미국인 콜브란이 합자하여 한성 전기 회사를 설립하였다.
- ④ 1895년에 청일전쟁을 마무리하는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었다.
- ⑤ 1895년에 을미개혁을 추진하면서 건양이라는 연호를 제정하였다.

34. ②

고종이 황제로 즉위한 이후 대한제국에서 추진한 개혁은 광무개혁이다. 대한제국은 ‘옛 법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제도를 참작한다.’라는 구본신참의 원칙을 내세워 점진적 개혁을 추진하였다(광무개혁). 이는 정통적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근대적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대한 제국은 개혁을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 전국의 토지를 조사하는 양전 사업을 실시하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토지 소유권을 보장하는 문서인 지계를 발행하였는데, 이는 국가가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오답분석]

- ① 1881년에 온건개화파 정권이 5군영에서 2명으로 군제를 개편하였다.
- ③ 1883년에 박문국을 설치하여 한성순보를 발행하였다.
- ④ 1894년 12월에 흥범 14조를 반포하고 제2차 갑오개혁을 추진하였다.
- ⑤ 1886년에 서양식 근대 교육 기관인 육영 공원을 설립하였다.

35. ⑤

안창호 등이 1907년에 조직한 비밀 결사는 신민회이다.

통감부의 탄압으로 정치·사회단체의 활동이 어려워지자 안창호, 양기탁 등은 비밀 결사인 신민회를 조직하였다(1907). 신민회는 국권 회복과 신국가 건설을 목표로 내세웠는데, 이는 공화정에 바탕을 둔 근대 국가를 수립하려는 것이었다.

신민회는 이를 위해 교육과 산업, 문화 등 실력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인재 양성을 위해 평양에 대성 학교, 정주에 오산 학교를 세웠으며, 계몽 서적을 출판하기 위한 태극서관을 운영하였다. 또한, 평양에 자기 회사를 설립하여 민족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국권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자 신민회의 일부 회원들은 실력양성 운동의 한계를 깨닫고, 장기적인 무장 독립 투쟁을 위해 독립운동 기지 건설에 나섰다. 이회영 등은 일가의 전 재산을 처분하여 만주에 신흥 무관 학교 등을 설립하였다.

[오답분석]

- ① 조선어학회가 1933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였다.
- ② 김원봉, 윤세주 등이 결성한 의열단이 조선 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하였다.
- ③ 동아일보가 주도하여 농촌 계몽을 위한 브나로드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④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독립 공채를 발행하였다.

36. ②

(가)는 일본에서 도입한 차관을 갚기 위해 전개된 국채 보상 운동이다.

일본은 을사늑약 이후 통감부를 설치하고 식민지 지배를 위한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 제국 정부에 일본으로부터 막대한 차관 도입을 강요하였다. 차관 도입으로 일본에 대한 경제적 예속이 심해지자, 국민이 성금을 모아 일본에 진 빚을 갚고 국권을 회복하자는 국채 보상 운동이 전개되었다(1907). 이 운동은 대구에서 김광제, 서상돈 등의 제의로 시작되어 대한매일신보 등 각종 신문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 운동에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하였는데 남자들은 담배를 끊고, 부녀자들은 비녀와 반지를 팔아 성금을 모았다.

[오답분석]

- ① 1920년에 회사령 폐지의 영향으로 물산 장려 운동이 시작되었다.
- ③ 방정환이 결성한 색동회는 어린이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 ④ 1926년 순종의 인산일을 계기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6·10 만세 운동을 함께 준비하였다.
- ⑤ 1929년에 일어난 원산 총파업에 중국, 프랑스 등의 노동 단체들이 격려 전문을 보내왔다.

37. ②

제시된 자료는 1905년 9월에 체결된 포츠머스 강화조약이다. 러·일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은 미국과 가쓰라·태프트 밀약(1905. 7.)을, 영국과 제2차 영·일 동맹(1905. 8.)을 맺어 두 나라로부터 대한 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았다. 또한, 미국의 중재로 러시아와 포츠머스 강화 조약(1905. 9.)을 체결하여 러시아로부터 대한 제국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보장받았다. 이어 일본은 이토 히로부미를 보내 일본군을 동원하여 궁궐을 포위하고, 대신들을 위협하여 을사늑약(제2차 한·일 협약)에 서명하게 하였다(1905. 11.).

고종은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이를 알리기 위한 외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 평화 회의에 이상설, 이준, 이위종을 특사로 파견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방해와 구미 열강의 무관심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오히려 일본은 이를 구실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켰다(1907).

[오답분석]

- ① 1885년에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거하였다.
- ③ 1898년에 상권 수호를 위해 시전 상인들이 황국 중앙 총상회를 조직하였다.
- ④ 1896년 1월에 을미사변과 단발령 시행에 반발하여 유생 출신 유인석이 의병을 일으켜 충주성을 점령하였다.
- ⑤ 1881년 조선 정부는 부산 두모포에 관세청을 설치하여 관세를 거두고자 했으나, 일본의 강경한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38. ①

(가)는 처음으로 일본과 미국에 유학하고, 『서유견문』을 집필한 유길준이다. 1881년에 조사시찰단의 수행원으로 따라갔던 윤치호, 유길준은 일본에 남아 최초의 근대 유학생이 되었다. 1883년에 유길준은 보빙사의 일원으로 미국에 갔다가 남아 유학하였고, 귀국 후 『서유견문』을 저술하였다. 유길준은 미국에 유학하는 동안 세계정세에 눈뜨게 되었다. 그는 조선이 중국, 영국 등 강대국이 보장하

는 중립국이 되면, 조선의 주권을 지킴과 동시에 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의 의견은 조선 정부와 열강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아 실현되지는 않았다.

[오답분석]

- ②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등이 갑신정변 실패 직후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 ③ 갑신정변 때 망명한 서재필이 미국에서 귀국하여 1896년에 독립 협회를 창립하였다.
- ④ 1885년에 미국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배재 학당을 설립하였다.
- ⑤ 1898년에 박정양이 참정대신 자격으로 관민 공동회에서 연설하였다.

39. ③

조선 민립 대학 기성회는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이상재와 이승훈 등이 중심이 된 조선 교육 협회는 고등 교육 기관인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을 시작하였다. 1923년 이들은 조선 민립 대학 기성회를 만들고,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1원씩’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모금 운동을 전개하였다. 초기에 활발하였던 모금 운동은 남부 지방의 가뭄과 전국적인 수해, 총독부의 방해, 지방 부호들의 참여 저조 등으로 중단되었다.

[오답분석]

- ① 3·1 운동(1919)이 중국의 5·4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 ② 을사늑약 진후에 애국 계몽 운동가들이 세운 사립 학교가 크게 증가하자 통감부는 1908년에 사립학교령을 발표하여 사립 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통제하였다.
- ④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1907년에 시작된 국채 보상 운동이 실패하였다.
- ⑤ 1898년 서울의 양반 부인들이 조직한 찬양회는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여권통문’이란 글을 발표하고, 1899년 2월에 순성 여학교를 직접 설립하기도 하였다.

40. ②

19세기 후반 한인들의 이주가 증가하면서 신한촌이 건설되고, 1937년 스탈린이 한인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킨 지역은 연해주이다. 1860년대부터 한인의 연해주 이주가 시작되었으며, 1905년 이후 급격히 늘어난 한국인들은 여러 곳에 신한촌을 비롯한 한인 집단촌을 형성하였고, 자치 단체와 학교도 설립하였다. 1911년에는 이범윤, 홍범도, 유인석, 이상설, 신채호 등이 자치 단체이자 독립운동 단체인 권업회를 조직하였다. 권업회는 기관지로 ‘권업신문’을 발행하고 독립군 양성을 위해 대전학교라는 무관학교를 설립하였다. 1914년 권업회는 독립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군정 기관인 대한광복군정부를 창설했다.

1937년 스탈린의 소련 당국은 소·일 간의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인들이 일본을 지원할 것이라고 우려하여 연해주 지역의 한국인 17만 여명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한국인들이 희생을 당하고 재산을 잃었다. 이때 강제 이주당한 한국인들을 ‘까레이스끼(고려인)’라고 불렀다.

[오답분석]

- ① 멕시코 이주 한인들이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해 승무 학교를 세웠다.
- ③ 이상설 등이 북간도에서 서전서숙을 설립하여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다.
- ④ 1912년에 국내에서 임병찬이 주도하여 독립 의군부를 조직하였다.
- ⑤ 일본 도쿄의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2·8 독립 선언서를 작성하였다.

41. ④

왕산 허위(1855~1908)는 1899년 벼슬길에 나서 성균관 박사, 중추원 의관, 평리원 재판장, 의정부 참찬, 비서원 승을 역임하였으나 을사늑약 체결 이후 벼슬을 그만두고 은거하였다. 1907년 군대 해산을 계기로 정미의병이 일어나자 유생 의병장들은 의병연합 부대(13도 창의군)를 결성하였다. 이들은 이인영을 창의대장에, 허위를 군사장에 추대하고 서울 진공 작전을 추진하였다. 1908년 1월에 군사장 허위가 선발대 300명을 이끌고 동대문 밖 30리 지점까지 접근하였다. 하지만 후발 의병 부대가 도착하기

전 일본군의 공격을 받고 치열한 격전 끝에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허위는 1908년 5월 연천에서 일본군에게 체포되어 9월 서대문형무소에서 1호 사형수로 교수형에 처해졌다.

심산 김창숙(1879~1962)은 1905년 을사오적의 목을 벨 것을 상소하고, 1909년에는 일진회를 성토했는 건의서를 신문에 낸 사건으로 체포되었다. 3·1 운동 이후 김창숙을 중심으로 한 유림은 파리 평화 회의에 한국 독립을 호소하는 서한을 작성해 보내려다 발각되었다(파리 장서 사건). 나석주는 1926년 12월 서울의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조선식산은행에 폭탄을 던지고 권총으로 일경 등 7명을 살상하였다. 당시 김창숙은 국내유림들을 통해 독립운동자금을 모아 나석주 의거에 지원하였다.

[오답분석]

ㄱ. 을사늑약 체결 직후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킨 최익현이 관군에게 체포되어 쓰시마 섬에 유배 중 순국하였다.

ㄴ. 박은식이 일본의 침략 과정을 서술한 『한국통사』를 저술하였다.

42. ③

(나) 1910년 공포된 범죄즉결례이다. 이 법은 경찰서장 또는 각 지방 헌병대장에게 징역 3개월 이하, 벌금 1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처벌은 재판소의 재판 없이 판정하여 즉결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가) 1919년 9월 조선 총독으로 부임한 사이토 마코토[齋藤實]가 조선 통치의 근본을 ‘문화 통치’로 변경하겠다고 선언한 유고(諭告)이다. 사이토는 부임 이래 헌병 경찰을 보통 경찰로 대체하고, 교원의 대검 착용을 폐지하는 등 문화 통치의 외양을 갖추려고 하였다. 또한 언론·출판·집회의 자유를 어느 정도 인정하여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발행을 허가하기도 하고, 조선인 관리의 임용이나, 도·부·면에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조선인의 정치적 진출도 어느 정도 가능하게 하였다.

(다) 1936년 제정된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이다. 이 법은 치안유지법 위반자 중 집행 유예, 형 집행 종료 또는 가출옥한 사람을 대상으로 2년간 보호 관찰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었다. 보호 관찰이란 피보호자의 거주, 교유, 통신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 일제에 저항하는 민족운동가나 사상범들을 출옥 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규제하는 제도였다.

43. ①

임시 정부가 침체에 빠지자 독립운동의 새로운 활로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상하이에서 개최된 회의는 국민 대표 회의이다.

1921년을 고비로 임시 정부의 활동은 침체 상태에 빠졌다. 이러한 가운데 외교 중심의 임시 정부 활동에 비판적이었던 신채호와 박용만 등이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서 제출 사실을 들어 임시 정부의 해산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독립운동 전선의 통일과 방향 전환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 대표 회의 소집을 주장하였다. 1923년 1월 상하이에서 개최된 국민 대표 회의는 국내외 독립운동가 130여 명이 참여하여 약 4개월 정도 계속되었다. 참석자들은 임시 정부를 해산하고 새 정부를 세우자고 주장하는 창조파, 임시 정부를 개편하자는 개조파, 기존의 정부를 고수하려는 고수파 등으로 나뉘었다. 결국 이들 사이의 대립으로 회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결렬되었고, 많은 독립운동가가 떠나면서 임시 정부의 세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44. ④

김병로는 일제 강점기 신간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며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나자 진상 조사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민중대회 사건으로 허헌, 홍명희 등 지도부가 검거된 이후 김병로는 새로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김병로를 위원장으로 하는 새로운 집행부는 ‘기회주의자를 배격한다’라는 초기 강령과는 달리 온건·합법 노선으로 선회하고, 자치운동을 주장하는 천도교 신파와 협력하려 하였다.

광복 이후 김병로는 남조선과도정부 사법부장을 지냈고,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는 초대 대법원장과 제2대 대법원장을 역임하였다. 김병로는 대법원장 재임 9년 3개월 동안 사법부 밖에서 오는 모든 압력과 간섭을 뿌리치고 사법권 독립의 기초를 다졌다.

[오답분석]

- ① 김구, 김규식, 조소앙 등이 남북 협상에 참석하였다.
- ② 이승만이 1946년에 정읍에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
- ③ 조소앙이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건국 강령을 작성하였다.
- ⑤ 여운형이 1944년에 비밀 결사로 조선 건국 동맹을 결성하였다.

45. ①

(가)는 양세봉을 총사령으로 하고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영릉가 전투에서 승리한 조선혁명군이다. 1929년에 남만주 일대의 한인 사회를 관리하는 자치 기관이자 독립운동 단체로 국민부가 설립되었다. 이어서 국민부를 지도하는 조직으로 조선 혁명당이 결성되고, 조선 혁명당을 지원하는 군 조직으로 조선 혁명군이 창설되었다.

1931년 만주 사변이 일어나고 일제가 만주를 점령하자, 조선혁명군은 총사령관 양세봉의 지휘 아래 중국 의용군(요녕 민중자위군)과 연합 작전을 전개하여 영릉가, 흥경성, 신개령, 통화현 전투 등에서 일본군을 물리쳤다. 그러나 1932년 10월에서 12월에 걸쳐 일본 관동군과 만주국군의 대규모 공세로 말미암아 중국 의용군이 와해되면서 조선 혁명군도 타격을 받았다. 총사령관 양세봉은 1934년 9월 일제의 토벌 부대와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오답분석]

- ② 1920년에 결성된 대한독립군단이 자유시 참변 이후 세력이 약화되었다.
- ③ 조선 독립 동맹 산하의 조선의용대가 중국 팔로군에 편제되어 항일 전선에 참여하였다.
- ④ 임시정부 산하의 한국광복군이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미얀마 전선에서 활동하였다.
- ⑤ 북만주 지역에서 활동한 한국 독립당의 산하 부대는 한국독립군이다.

46. ⑤

태평양 전쟁은 1941년 12월에 시작되었으므로 밑줄 그은 ‘시기’는 1941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를 가리킨다. 1937년 중·일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대동아 공영권 건설을 내세워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침략 전쟁을 확대하였다. 이에 미국과 영국이 경제 봉쇄로 맞서자, 일본은 1941년 12월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였고, 이로써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었다.

중·일 전쟁 발발 이후 일제는 1938년에 제3차 조선교육령을 실시하였다. 황국 신민화 교육이 강화되었고, 소학교와 보통학교로 구분되었던 초등 교육 기관의 명칭은 심상소학교로 통일되었다. 조선어는 선택 과목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폐지되었다. 1941년에는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칭하였다.

일제는 중·일 전쟁 직후 전투 병력이 모자라자 1938년 지원병 제도를 실시하였다.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에는 1943년에 학도 지원병제를 실시하여 학생들을 전쟁터로 끌고 갔으며, 조선인 징병제를 공포한 후 1944년부터 약 24만 명의 한국인 청년을 전쟁터로 끌고 갔다.

일제는 군수 산업에 종사할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1939년 국민 징용령을 실시하여 1백만 명 이상의 한국인을 일본, 사할린, 동남 아시아 등지로 끌고 갔다. 한국인들은 군수 공장이나 광산, 비행장, 철도, 해군 기지 건설 공사장에 투입되어 노예처럼 혹사당하였다.

일본은 중·일 전쟁 발발 이후 내선일체를 내세우며 조선인의 황국 신민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황국 신민 서사’라는 충성 맹세문을 모든 일상 생활 속에서 제창하게 하였고, 전국의 모든 읍, 면에 신사를 세워 한국인의 참배를 강요하였으며(신사참배), 매일 아침 일본 궁성을 향해 허리 숙여 절을 하도록 하였다(궁성요배).

[오답분석]

⑤ 조선태형령은 1912년에 제정되어 1920년까지 시행되었다.

47. ③

(가)는 1960년 4월 26일에 이승만이 발표한 하야 성명이고, (나)는 1961년 5·16 정변 직후 군사혁명 위원회가 발표한 6개항의 혁명 공약이다.

4·19 혁명 이후 미국의 퇴진 권유까지 더해지자 이승만은 결국 4월 26일에 하야 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 미국으로 망명하였다. 이로써 12년간에 걸친 이승만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외무부 장관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수립되었다. 허정 과도 정부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 헌정 사상 최초로 내각책임제와 양원제를 빼대로 하는 헌법을 제정하였다(제3차 개헌). 새 헌법에 따라 1960년 7월 실시된 참의원(상원)과 민의원(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1960년 8월 윤보선을 대통령, 장면을 국무총리로 하는 제2 공화국이 출범하였다.

[오답분석]

①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 이후 조봉암을 중심으로 진보당이 창당되었다.

②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신군부는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④ 1949년에 유상 매수, 유상 분배를 규정한 농지 개혁법이 제정되었다.

⑤ 1976년에 긴급조치 철폐를 요구하는 3·1 민주 구국 선언이 발표되었다.

48. ①

김영삼 정부가 50주년 광복절인 1995년 8월 15일에 옛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하였다.

1992년 5·16 군사 정변 이후 처음으로 민간인 출신의 김영삼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문민 정부). 김영삼 정부는 사회 정의 실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 실명제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를 실시하여 전면적인 지방 자치 시대를 열었다. 1996년에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하여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 자본이 보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1997년 말 국제 경제의 여건 악화와 외환 관리 실패로 외환위기를 맞아 국제 통화 기금(IMF)의 지원을 받아야 하였다.

[오답분석]

②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4년에 칠레와 자유 무역 협정(FTA)을 체결하였다.

③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8년 1월 1일에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④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7년 10월에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⑤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64년에 굴욕적인 대일 외교에 반대하는 6·3 시위가 일어났다.

49. ⑤

질병 관리 본부 출범,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 시작 등은 모두 노무현 정부 시기의 사실이다.

2002년 선거에서 노무현이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참여 정부). 노무현 정부는 정경 유착 단절, 권 위주의 청산, 친일과 독재와 관련된 과거사 정리 등을 위해 노력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2005년 출범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 이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은폐된 진실을 밝혀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오답분석]

①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5년에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연맹이 창립되었다.

②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1년에 국제 통화 기금(IMF)의 채무를 조기 상환하였다.

③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89년에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이 설립되었다.

④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69년에 중학교 입시 제도를 폐지하고 무시험 추첨제를 실시하였다.

50. ③

(나) 1985년에 분단 이후 처음으로 서울과 평양에서 이산가족 고향 방문이 이루어지고 예술공연단 교환이 실현되었다.

(가) 1988년에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7·7 선언이 발표되었다.

(다) 2000년에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 회담에서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개성 공단 조성에 합의하였다.